

행복에 넘친 어머니들의 모습

- 어머니날을 맞으며 -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이룩해간다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빛전자연구소에서 농작물의 생육상태를 개선하고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이룩하고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레이자를 쪼여주면 농작물의 활성이 왕성해지면서 종자의 싹트기가 촉진되고 빛합성이 강화되어 알곡수출이 높아지게 된다.

이곳 연구소에서는 레이자의 이런 특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에서 장치를 개발하였으며 농업근로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장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제작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교육연구원에서도 나라의 교육구조를 선진적인 구조로 바꿀 계획을 세우고 이와 관련한 실천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교육방안편성에 이바지할수 있는 교육목표분리학을 새롭게 정립하고 학생들의 지적능력과 창조적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도입하여 교육사업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교육의 정보화를 위하여 다매체편집물과 특화된 집물제작을 다그치고있으며 연구개발조를 별도로 조직하여 물리, 화학, 생물을 비롯하여 지능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인기를 모으는 기능성치약들

공화국의 맑은아침제약소에서 생산하는 제물들이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맑은아침제약소의 일군, 종업원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물들을 생산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자동화와 무균화가 실현된 제품생산공정을 갖추어놓았다.

제약소에서는 자체의 기술, 자재의 원료에 의거하여 인삼치약, 나노은치약, 니코틴 제거치약, 비타민치약, 어린이치약, 미백치약, 퐁치치약, 황경피치약 등 수십가지의 기능성치약들을 개발생산하여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 제품들은 짧은 시일안에 이발이 회여지고 광택이 나며 이물출혈과 면역강화, 이소기 멈추기 등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어린이치약은 이삭기예방에 특효가 있으며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게 달콤한 딸기향을 배합한것으로 하여 어머니들이 좋아하고 있다.

또한 아름답고 하얀 이발로 만들어주는 미백치약은 이발표백에서 효과가 높고 초콜레트나 커피, 차로 인한 얼룩을 제거하는 효능이 뚜렷하다고 한다.

이제 못지 않게 양복제작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봉화무역국 봉화피복연구보급실에서 제작한 미색남자양복과 끈색출장양복, 끈색남자점심셔투도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런가 하면 은하무역국 서성은하피복공장에서는 가벼우면서도 형식

날로 발전하는 공화국의 옷차림문화

《가을철피복전시회-2023》을 돌아보고

아름다워지고 돋보이고싶은것은 사람들 누구나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이런 마음을 담아 평양의 풍치수려한 대동강변에 위치한 옥류전시관에서 《우리 시대처럼 눈부시게, 우리 리상처럼 아름답게》라는 주제로 《가을철피복전시회-2023》이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전시회장을 꼭 채우다싶이한 27종에 8만여점의 우아하고 산뜻한 각양각색의 피복제품들은 그 형태와 색깔, 재질 등 개성이 뚜렷한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일마절 이곳 전시회장을 찾은 우리의 눈앞에 먼저 안겨드것은 가상현실이 도입된 투영막이었다.

투영막에서는 각양각색의 옷차림을 한 처녀총각들이 잇따가어 등장하면서 황홀한 옷맵시를 펼쳐보이고 있었다.

우리는 사람들로 붐비는 대성구역 종합양복점 전시대로 걸음을 옮겼다.

은은한 색깔을 바탕으로 독특한 것 장식과 팔소매장식, 주머니장식 등 맵시있는 장식들을 한 세련하고 우아한 양복들이 전시되어있는 이곳에서 한 청년이 마음에 드는 양복을 골라 입고 나서니 보는 사람마다 의젓하고 미끈하다고, 옷이 날개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에 못지 않게 양복제작에서 첫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봉화무역국 봉화피복연구보급실에서 제작한 미색남자양복과 끈색출장양복, 끈색남자점심셔투도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런가 하면 은하무역국 서성은하피복공장에서는 가벼우면서도 형식

이 새로운 오리털솜옷을 내놓아 전시대를 특색있게 장식하고있었다.

어린 아들과 같이 온 한 부부는 오리털솜옷을 입어보고 《새롭다는것이 알린다. 밝은 미색과 대조되게 v자형식의 까만 자크를 달아 돋보이게 한것도 좋지만 날씨에 따라 편직모자와 솜옷모자를 쓰게 되어있어 매우 편리하다.》고 말하였다.

이번 전시회에 처음으로 참가하였다는 평양대흥모피공공공장의 옷제작기술수도 높았다.

공장에서 만든 은은한 색깔에 만져볼수록 부드러운감을 느끼는 너성밍크털외투, 질이 좋으면서도 무게있어 보이는 남자가족잠바는 명품들만 올려놓는다는 종합전시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전시회장을 돌아보는 우리의 시야에 안해에게 어울리는 옷을 골라주느라 원심을 쓰며 다양한 피복제품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남성들의 모습도 안겨왔다.

자기 단위의 특색을 살리며 전시된 피복제품들은 어느것이라 할것없이 멋있고 훌륭했다.

평천구역에서 왔다는 한 녀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발목이 시도록 돌아보아도 싶지 않습니다. 옷들이 색깔도 곱고 형태도 얼마나 다양한지 다 마음에 듭니다.》

참으로 인민들의 정서와 기호에 맞는 고상하고 문명한 옷차림문화의 발전전모를 보여주는 전시회장의 그 어디에서나 나날이 개화하는 새 문화, 새 문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차 넘치고있었다.



본사기자 리철민

민족로리 동치미

동치미는 겨울에 담그는 무우김치의 한가지이다. 무우에는 여러가지 비타민이 들어있는데 특히 비타민 C가 많다.

무우가 익으면서 생기는 여러가지 유기산들은 소화를 촉진시키고 몸안에서의 물질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이로 하여 입맛이 없고 피로할 때, 소화가 잘 안될 때 먹으면 좋으며 동맥경화, 변비 등에도 효과가 있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무우 30kg, 마늘 50g, 파 70g, 마늘 100g, 생강 100g, 소금 1.2kg, 배 300g을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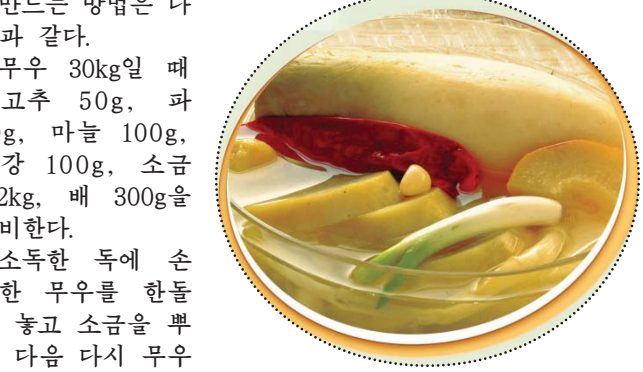
소독한 독에 손질한 무우를 한들기 놓고 고춧가루를 뿌린 다음 다시 무우

를 한들기 놓는다. 이런 방법으로 독을 채우고 2일동안 절인다.

절인 무우를 한들기 놓고 파, 마늘, 생강, 통고추, 배를 놓는 식으로 독을 채우고 우거지를 덮은 다음 누름돌을 놓는다.

초벌절임할 때 생긴 물과 피어서 식힌 소금물을 채로 맑은 다음 독에 붓고 아귀를 꼭 봉한다.

본사기자



조선 온돌 (4) 글리빈, 그림채대성

결에 얹은 이웃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옹은 말이라고 공감함을 표실했다.

이에 고치지 않고 그들은 제 나라 땅이 아닌 이역에서 몸이 상차까지 갔으니 얼마나 고향의 혈육들이 더 그림졌는가, 하지만 너무 애를 썼는 없다, 이제 곧 완쾌되어 고향으로 가게 될것이라고 따듯이 위로하였다.

유로인이 혼연하게 뒤를 이었다.

《아무렴, 인차 고향에 가게 되구말라. 하루빨리 가야지. 사람이 천리만리를 가도 오로지 마음은 제 고향땅에 두고있어야 하는걸세.》 말을 마치고도 환자의 심정을 헤아려보는듯 한동안 목상에 잠겨있던 로인은 이윽고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오르듯 얼굴이 밝아지며 다시 입을 열었다.

《이자 자네가 덕이니 복이니 하고 옹게 말했는데 그건 다 우리에게 현명한 조상님들께서 손수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준 덕이고 복일세. 수천년전에 우리 발달시켜서 시조이신 단군성왕님께서 충신들의 도움을 받아 구들을 비롯하여 만민에게 복이 되고 덕이 될 여러가지 풍속을 세상에 내놓으시

구. 하, 이거 뭐 좋은게 너무 많아 미처 다 꼽아내 수가 없구만. ...》 그가 숨을 돌리는 사이 결의 사내가 서둘러 가로했다. 《자네 거 말하기 좀차하는데 좀 쉬라구. 내가 도와줄테니까. 아궁에서 밥을 짓는 불길에 구들을 덥히니 그건 공짜라 큰 리득이요. 공짜리득이 또 없으니 밭짓구 남은 불을.》 그는 약탕관이 꿩고있는 오지화로를 가리키며 《저렇게 화로에 달아 구들에 척 들여놓은즉 방안이 끝질 더워지지 않아, 화로에 저런 약탕기만 아니라 덕보게 좀 많은가. 여러가지 찬거리를 지지고 콩떡아 먹구, 추운 날 술데우구, 밥, 닭알 삶아먹어 좋아, 불뎀 달구어 찜질하구 굶은 옛 늑이구 서로 언 손을 녹이면서 마주앉아 한담하기 좋구. 난구멍에서 젖은 비신을 말려우고...》 하고 흐르는 물같이 쏟아져나오는 말을 유로인이 막았다.

《가만, 가만, 자네 그렇게 뻔어나간 취술같이 늘어놓다간 검은머리 파뿌리되겠네. 구들말 장마당에서야 구들말을 해야지. 화로는 또 왜 끌어다붙이나. 그러니까 끌어안수밖에.》

말하러를 잘리했던 사나이로 돌아가리라. 다음날 아침. 유로인은 사람 하나를 봉산관가로 보내어 부상자를 돌봐주고있는 사실을 고하하였다.

해질녘에 아전이 나타났다. 관속 하나가 따라왔다. 그는 박연의 상차를 들여다보면서 이것저것 몇가지 물어보고는 총총히 돌아갔다.

내렸다가 지나 그 아전이 다시 와서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박연은 이 화기에예한 분위

어진 큰길(국도)엔 마을 하나를 외곽침략자들이 불태워 버렸는데 집을 잃은 많은 가정들 가운데 하나가 칠곡으로 들어와서 유로인의 옷방에서 거울을 냈다. 그 재간가정을 위한 집짓기인것이다.

박연은 지평에 의지하여 바깥출입을 할수 있게 추웠다.

그는 집짓는 일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손으로 할 일은 다 찾아다니며 힘껏 도왔다. 특히 바닥을 고르고 구들을 놓을 때는 노상 붙어있었다.

유로인이 아예목컨으로부터 옷목컨으로 가면서 바닥을 조금씩 높여 다짐을 하자 박연은 그 까닭을 물었다.

《불길이란 원래 우로만 오는 성질이 있지 않나.》 박연은 즉시 머리를 끄덕였다.

《술을니다. 들고보니 리치에 맞는군요.》 《자네 굴뚝은 왜 동쪽으로 내는지는 아나?》 《아. 그 역시 리치대로이군요!》

그는 이 마당에서야 비로소 리치의 과약을 떠나서서 그 어떤 재능도 이루어질수 없다는 진리를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바닥을 끌어올리는 집안으로 젊은이들이 목침 두어개 만한 매장들을 날라들었다.

유로인은 그것을 받아 두 겹봉으로 부엌으로부터 굴뚝 방향으로 여섯줄의 푼을 쌓았다.



기예 심취되어 오고가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며 구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하여 그것이 더욱 부러웠다.

조선입국 8년사이 구들에서 살아온 그였건만 이곳 사람들의 말을 듣고보니 참으로 구들덕이란 이미 알고있는 그밖으로 큰것이 아닌가. 그는 속다짐했다.

내 조선구들의 생김새를 밑바닥까지 깊이 파고들어서 상세한 기록을 가지고 고국

아전의 말을 그대로 혼련대장에게 전하였다. 혼련대장은 박연을 구원한 칠곡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을 한대 이어 완쾌시켜 돌려보내라는 부탁을 하였다.

봉산관가는 아전전에 박연에게 필요한 약재 몇가지를 보내어왔다.

...어느덧 봄이 왔다. 칠곡동네사람들은 한채의 새집짓기에 달라붙었다. 여기로부터 한 20여년

웃어른의 도움

어느날 집에서 한마리의 소를 기르고있었다. 어느날 소가 량식을 훔쳐 먹다가 대가리를 쌀독에 틀어박은채 쫓지 못하고있었다. 는 가족이 어쩔바를 몰라 하는데 로인은 곧 이렇게 분부하였다.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느냐? 소대가리를 잘라버리면 되지 않느냐!》 집안사람들은 로인이 가르쳐준대로 소대가리를 제격 잘라버렸다.

그런데 소대가리가 그냥 독안에 틀어박힌채 나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또 로인에게 물어보았다.

로인은 대답하였다. 《독을 까부시면 될게 아니냐!》

가족들이 또 독을 까부서 버리니 아니나다를까 소대가리가 순조롭게 나왔다. 이때 로인이 대성통곡하기 시작하였다.

《아이구, 내가 이렇게 내가 먹어 이제 몇해를 더 살지 못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